

# 한국 수영 "다음 목표, AG 최고 성적"

후쿠오카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 자유영·계영서 아시아 최고 수준 입증

한국 수영이 2023 후쿠오카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약에 성공한 가운데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호준과 김우민은 개인 종목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다. 이들은 황선우와 함께 한 계영 800m에서 결승에 올라 6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번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종목 3개, 단체전인 계영에서 5개 등 8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세계선수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달 31일 귀국한 대표팀은 아시안 게임을 겨냥했다. 아시안 게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역대 단일 아시안게임 수영 최다 금메달은 2010 광저우 대회 때 거둔 4개다. 박태환이 남자 자유형 3관왕(100m·200m·400m)에 올랐고 정다라가 여자 평영 2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땀다.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



황선우를 비롯한 대한민국 경영 선수단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3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경영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따내고, 한국 신기록 8개를 작성했다.

메달 5개 이상을 노릴 전망이다. 황선우가 자유형 200m와 100m, 김우민이 자유형 400m와 800m, 1500m에 도전한다. 여기에 황선우-이호준-김우민-양재훈이 출전하는 계영 800m도 금메달

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서 5위, 8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김우민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회를 잘 준비

하고 대회를 잘 마무리해서 정말 기분 좋다"며 "히제 아시안게임과 내년 올림피아까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안게임에서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수영하는 것을 많이 봤고 제가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며 "늘 하는 대로 항상 열심히 성실히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는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우민은 아시안게임에서 3~4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열심히 하면 따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3개 이상 하고 싶다"면서 최대 4개까지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자유형 200m 결승에서 6위에 오른 이호준도 아시안게임 선전을 약속했다. 그는 "개인전에서는 세계선수권 결승에 처음 진출해봤기 때문에 제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 한국 선수 2명이 아시안게임 포디움에 오르는 좋은 그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은 남자 계영 800m 금메달도

정조준했다. 그는 "계영팀으로서 다 같이 좋은 분위기로 간다면 계영에서도 금메달, 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신 기록에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 간판 황선우 역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 개인 종목인 자유형 100m, 200m에서 포디움에 굉장히 오르고 싶은 마음이 크고 200m 같은 경우는 세계선수권 경기 결과를 보면 아시아 1위 기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영 800m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계영 800m도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선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메달을 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형 종목에서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 원하는 메달과 원하는 기록을 얻는 그런 아시안게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탁구협회 신정현 회장

전북체육 발전기금 전달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전북탁구협회 회장이자 도 체육회 이사인 신정현 회장(사진 오른쪽)이 오는 10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도체육회에 기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 회장은 전북탁구협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으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 회장은 전북도민,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흔쾌히 발전기금을 냈다.

신 회장이 전달한 발전기금은 오는 10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출전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뉴시스

## 올 태권도를 빛낸 헌액자 선정

태권도진흥재단, 故 고의민 사범·故 박선재 사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3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으로 헌액자 2인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故 고의민 사범



故 박선재 사범

재 대행을 역임한 고(故) 박선재 사범이 선정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오는 9월 4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고 의민 사범과 고 박선재 사범에 대한 헌액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액식 후에는 태권도원 명인관 내에 있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 공간에 흉상 동판 설치 등의 헌액자 예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갑 대행은 "태권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신 두 분을 태권도원에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START'

8월 4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 일원서

축구·농구·배구·탁구 등 5개 종목

한국 선수단 218명 참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된다.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체육회에 따르면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에 참가하기 위해 최근 한국 선수단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교류 대회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이뤄지게 됐으며 이번 교류는 오는 4일까지 일본 도쿠시마현 일원에서 펼쳐진다.

한국 선수단은 218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으며 도 체육회 부회장이자 익산시체육회장인 조장희 회장이 선수단 단장으로 학생 선수들을 이끌게 된다.

경기는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총 5개 종목이 펼쳐지며 스포츠로 우의를 다지는 친선 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별도의 순위와 체점은 정하지 않는다. 한국 선수단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육 교류를 비롯해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조장희 단장은 "양 국의 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체육 교류를 지속적

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전은 양 국의 스포츠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 프로그램 사업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 # # # #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넌눈물) 이태원(술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